

## 박태환 · 성훈 · 안세현 수영대회 홍보대사 총출동 '봄 업'

오늘 광주 잇달아 방문해 막바지 홍보  
팬사인회 · 경영 선수 응원전 동참 등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들이 광주로 총 출동해 막바지 대회 붐 조성에 나선다.

25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수영선수 박태환·안세현과 수영선수 출신 배우 성훈이 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잇달아 광주를 방문한다.  
배우 성훈은 26일 오후 3시30분

남부대 주경기장 마켓스트리트에서 팬사인회와 팬미팅을 통해 이번 대회를 홍보한다.

수영스타 박태환은 26일 오후 7시 남부대 주경기장을 찾아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경기장 아나운서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선수들을 응원한다.

아쉽게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한국 여자경영 최고 성적을 보유 중인 안세현도 26일까지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에게 힘을 보탠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박태환과 최근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인 박태환(왼쪽) 선수와 안세현 선수.

를 얻고 있는 성훈은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수영대회를 홍보하고 일반 시민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태환은 지난 21일 이용섭 조직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 대한민국 수영 인프라를 넓힐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성훈(오른쪽).

박태환과 성훈은 그동안 광주수영대회를 홍보하는 영상에 출연하고 유니폼 패션쇼, 전야제 등 각종 행사를 통해 붐 업 조성에 앞장서 왔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경숙 여사가 남부대 주경기장을 방문해 여자 200m 개인혼영 결승전과 23일 남자 수구대표팀의 경기를 응원했다.

신봉우 기자

### 광주시민단체 “日 경제보복 규탄 · 평화체제 구축” 촉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등 광주 지역 123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조속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광주시민 자주평화선언’도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5일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조속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123개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금지 조치는 경

제전쟁이며, 이는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이다”면서

“이에 동조하며 망언을 일삼는 부역세력들은 5·18민주광장을 폐쇄함으로써 스스로의 뿌리가 진일·반민족 범죄집단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아베와 그 부역자들, 적폐세력을 단죄하기 위한 본질 해법은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있다”면서 “이는 전쟁과 갈등을 정치적 생명유지의 도구로 더 이상 사용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에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며 남과 북 8000만 겨레가 힘을 합쳐 튼튼한 민족자주의 힘으로 냉전·분단 세력을 제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침략을 자행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를 규탄하며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미국의 북·미싱가포르 선언 이행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시도 즉각 포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시 등을 골자로 한 ‘광주시민 자주평화선언’이 낭독됐다.  
조인호 기자

### 남해안권 발전 새 밑그림 나왔다

해양관광벨트 · 통합생활권 ‘변경안’ 마련

전남도, 부산시, 경남도가 공동으로 오는 2030년까지 20조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남해안 해안관광벨트 및 통합생활권 구축 등 남해안권 종합발전 계획의 새 밑그림이 나왔다.

전남도는 25일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 열람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2010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그 동안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변경(안)을 마련한 것이다.

오는 8월 9일 오후 2시 나주 혁신도시 소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도민,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3개 시도 33개 시군구 지역이 포함돼 있다.

전남에선 목포 등 해안 인접 16개 시군이 해당되며, 47개 세부사업에 9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남해안 테마섬 개발

등 관광벨트 조성 ▲차세대 신소재산업 연관단지 구축 등 미래형 산업 육성 ▲연륙·연도교, 도로·철도 등 산업 및 관광거점 연결을 위한 SOC 확충 ▲동서해저터널 및 남도2대교 등 영호남 상생협력 사업 등이 담겨 있다.

전남도는 이 계획(안)이 시행되면 22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7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4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으로 남해안 시대 개막을 앞당기고 ‘전남 블루 이코노미(블루 투어)’ 비전 달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인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주민 열람 및 공청회를 통해 수립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사업별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